

210일의 썸머: 아이티공화국에 대한 단상

최우석

아이티로 떠나며

필자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10일 간에 걸쳐 아이티(Haïti)에 머물렀다. UN군의 일원으로 아이티에서의 평화유지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이티를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정보 기술을 뜻하는 IT로 알아 듣기 십상이었다. 이제 오해를 줄이는 요령으로, ‘아이티’ 뒤에 ‘공화국’을 꼭 붙여서 ‘아이티공화국’이라 말하곤 한다. 일부에게 잘 알려진 바처럼 공화국으로서 아이티의 역사는 짧지 않으며, 그 긴 도정은 놀라우리만치 영광스러웠다. 프랑스가 거칠게 착취하던 척박한 식민지에 불과했던 불모의 땅에서 기성의 세계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억압과 착취에 대한 갈 데 없는 분노가 그저 폭발하는 소요에 그치지 않았으며, 결출한 지도자의 도움으로 정치하게 고무된 열망과 희망에 의해 창출된 혁명이었다. 공화국 아이티는 그렇게 탄생했다. 1804년, 프랑스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외치며 프랑스 공화국을 이룩한 지 겨우 12년 지났을 뿐이다. 유럽에서는 이제 겨우 근대성이라는 것이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국가의 전제정은 여전히 공고했다. 이때 아이티의 흑인들은 흑인 최초의 식민지해방투쟁을 이끌었으며, 성공적인 노예혁명을 통해 공화국을 세우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이 이루어낸 공화국의 양상은 공화주의의 이념에 그 어떤 경우보다 근접해 있었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공화국이라면 어느 누구



아이티의 교통수단 탐탐

도 노예일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서구의 많은 공화주의자들은 노예제의 실체에 대해 침묵하거나 말을 돌렸다. 그 당시 노예제는 근대의 핵심적인 근거인 소유의 규칙을 지탱하며, 제도화된 인종적 위계를 수호하는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 성립한 아이티공화국은 자폐적이던 공화국과 근대의 자기규정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확대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유럽에게 이와 같은 쾌거는 그들이 갖는 물질적 제도적 실체의 모순을 극명히 드러내는 치부에 불과했다. 서구 중심의 역사에서 아이티 혁명은 함구된 채 마치 없는 존재가 되거나, 혹은 격하된 채 동시대 여러 혁명들의 아류가 되어야만 했다.

2011년 7월, 인천에 위치한 국제평화지원단에서는 아이티 재건 지원단 4진 파병 교육이 한창이었다. 초청된 연사는 1804년 혁명의 200년 후 아이티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티가 한국 전쟁 당시 UN의 일원으로 한국에게 상당액을 원조해준 나라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우리가 폐허에서 일어서는 비결을 전수해야 한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거듭하였다. 아이티는 한국에게 시혜적인 우월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아이티를 대하는 세계의 일반적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몇 편의 책을 통해 진흙 같은 혼란과 교란 속에서 진주와 같이 빛나는 아이티를 만난 나의 귀에 연사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서구의 폭력적 무관심 가운데 공화국이라는 정체가 아이티에서 어떤 자율성을 갖고 끝없이 변모하여 새로운 양상에 이르렀을지, 그에 대한 상상으로 가슴이 떨 뿐이었다.

아이티공화국과 아이티 사람들

비행기에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팍팍한 열기가 엄습하며 온 몸을 감싼다. 의외로 버틸만하다. 눈 앞에 펼쳐진 허허벌판. 하늘 높게 솟은 야자수. 그리고 허허벌판의 끝에 들어선 난민 캠프도 눈에 들어온다. 지진이 난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데, 도처의 앙상한 잔해들은 그나마 정돈된 것인지, 여전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도시 곳곳의 을씨년스러운 폐허 위에 잡초마냥 살아가는 아이티인들의 생존력 혹은 생활력은 볼 때마다 경이로웠다.

그들은 마치 땅에 엷힌 채 사는 사람들 같다. 아이티 사람들뿐 아니라 아이티의 많은 것들이 그 땅에 뿌리 하나 내리지 못하고 그저 열기설기한 가건물 마냥 어색하게 대지에 놓여 있다는 인상이 강한 것이다. 모든 것이 뿌리 뽑힌 지진 이후의 풍경을 지켜보았기에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 그들의 삶과, 민둥산 정상까지 들어찬 집들부터 강에 강물 대신 가득 들어찬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박토 위의 모든 것들은, 또 무엇인가 이들을 쓸어 간다면, 그저 무력하고 망망하게 쓸려갈 것만 같다. 아이티 민중들이 그들이 지금 밟 디딘 땅마저 그 의미를 논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정부를 비롯한 상부 구조의 기구들이 그 땅



포르토프랭스의 한산한 한 때

위에 금을 긋고, 그들과 땅에 대한 행정과 관리를 논한들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지 의문이다.

아이티 정부와 아이티 민중들 사이의 간극은 크다. 이는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아이티 인구 중 몇몇은 자기 가게를 갖고 있지만 대다수가 실직자들이다. 운이 좋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도시의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투입되기도 한다. 도로 옆으로 쪽 늘어선 가판과 노점들에서 직접 구한 과일이나 소채류를 팔기도 한다. 또 도로 곳곳에 돌아다니며 물과 음료수를 팔기도 한다. 아이티의 교통 상황은 제대로 된 신호등도 잘 없을 정도로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정체가 일상인데, 도로에 갇힌 운전자들이 이들의 주된 고객이다. 상황이 좀 나은 이들은 자가용을 개조하고 장식하여 탑탑(tap tap)이라는 교통수단을 운영하기도 한다. 한국으로 치면 시내, 시외 버스 기능을 하는 교통 수단이다. 탑탑은 낮이든 밤이든 사람들도 가득 붐빈다. 그들은 어디에서 어디론가 분주히 다닌다. 탑탑을 왜 그렇게 열심히 타며 여기저기 돌아다니

는지 항상 의아하다. 국가의 공식 경제라는 것이 분명 있기야 하지만 쉬이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간혹 공단이나 공공사업 현장을 볼 수는 있다. 주민들이 그와 관계 맺는 방식은 조금 독특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의 한 정유 시설 앞에서는 국가 주도의 공공 사업으로 도로 건설이 '오랫동안' 한창이었다. 흥미롭게도 지역주민들은 되려 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고, 밤이 되면 건설된 부분을 파괴하기도 했다. 그 이유인 즉, 만성적인 도로 정체로 정유사의 수송차가 멈추어서면 주변 주민들이 몰려나와 기름을 조금씩 훔쳐서 되파는 것이 그들의 생계 수단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쉬이 생각하는 공공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격을 표방하며 내세우는 국가의 행정이라는 것은 아이티인의 전유적 삶 앞에서 모호하고 확정 불가능한 것으로 녹아 내려 버린다.

아이티 정부와 그 국민들 사이의 괴리는 아이티 정부의 무능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아직도 건설 중인 그 도로를 따라 수도에서 40km 정도 서쪽으로 가면 한국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레오간(Léogâne)이라는 농촌 마을이 나온다. 이곳은 지진 당시 진앙이 위치했던 곳으로 지진으로 지역의 85% 가량이 파괴되어, 이곳 주민들은 수도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욱 열악한 처지다. 농촌이지만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어 농사 짓는 경우가 흔치 않다. 부대 담 너머로 마을을 보고 있자면, 나무 그늘 아래 하루 종일 앉아 쉬는 남성들이 많이 보인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다고 한다. 주로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진다. 거리에서 막 탄 듯한 망고를 비롯한 열대과일 몇 개를 펼쳐놓고 파는 정도이다. 지진 이후 아이티 정부는 레오간과 같은 농촌 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했다. 밀려오는 수입산 농산물과 빈번한 자연 재해 등으로 철저히 붕괴되어 버린 아이티의 농촌과 농업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였다. 시간이 흐른 지금 관개 및 기반 시설조차 개선된 바 없이 열악했던 그대로다.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아이티 정부의 몇 안될 개발정책 마저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지진 복구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인 레오간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티 북부 카라콜(Caracol)에서는 미국정부와 미주개발은행의 지원, 그리고 한 한국 의류 업체의 투자를 유치해 공단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업은 지진 재건 사업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라고 평가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아이티 현지에서는 온갖 잡음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소 선정부터가 비판의 대상이다. 카라콜은 지진 피해가 거의 없던 곳이고, 주민들은 조용히 농사를 짓고 있었다. 국제 사회로부터 답지한 지원금 중 엄청난 액수가 도움이 절실한 곳이 아닌 이런 평화로운 농촌 지역에 투입되었고, 주민들은 자신들이 일군 터전을 영문도 모르고 빼앗겨 버렸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파괴될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의 시장조차 이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감감하다고 한다. 현지 성당의 가톨릭 사제는 새 공장이 새 일을 가져다 주게 될지는 몰라



한국 부대의 현지 통역인과 함께한 필자. 이들은 모두 영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레올을 구사한다.

도, 이곳 주민들은 노동자가 되어서도 과거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티의 어느 곳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이곳도 역시 끝없는 소작쟁의와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¹⁾.

한국군 부대에 배정된 레오간 출신 현지 통역인 필리프는 국가 재건의 모든 역량을 수도 재건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국의 공병부대로 차라리 수도인 포르토프랭스로 가야 한다고 습관처럼 말하고는 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면, 과연 레오간과 같이 수도 아닌 곳에 사는 이들에게 국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되물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수도 사정이 딱히 나아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 도시에는 3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피난민 캠프에서 처절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중이다. 삶이 개선되리라는 전망은 희박하다. 그들이 그런 삶에 익숙해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며, 한편으로는 비극이고, 한 마디로 놀라운 기적이다. 수도의 피난민

1) "Earthquake Relief Where Haiti Wasn't Broken", *The New York Times*, 2012. 7. 5. 참고.

들이 기적을 행하는 동안 수도 거리 곳곳에 공허하게 나부끼는 마르텔리 현 아이티 대통령의 플라망이 어딘가 존재할 국가 기구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아이티를 떠나며

귀국 비행기 안에서 7개월 전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했던 상상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지난 기대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니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국토 전반의 처참한 풍경만 보자면 아이티공화국은 실패국가에 맞다. 그러나 실패국가라는 규정의 낙인만으로는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설명할 수 없으리란 점 또한 명백하다. 이제 이곳의 시공간과 사람들에게 국민국가라는 근대적인 경계는 의미 없어 보인다. 아이티공화국이라는 상부의 구조가 민중 자신들의 욕망과 어긋나기 시작하여 이름만 너털너털 남은 껍데기가 되어갈 때, 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며 자구의 삶을 개척해 온 것이다. 무정부의 저 혼란스러운 상황과 최저의 생계 속에서도 아이티인들의 얼굴에 활력 찬 웃음이 가득 차 있다. 이는 한 국가의 실패가 아이티 민중들의 실패가 아니므로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것이다. 행복이란 불가능할 것 같은 그곳에서 싹트는 아이티 민중들의 웃음을 보며 무엇이 진정으로 튼튼한 행복일지를 다시금 생각한다. 아이티의 혁명적 전통의 정통성을 판단하는 최종 심급은 오직 민중이다. 민중의 활력이 그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가시적으로 구성해내리라 지금 이순간에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없이 강렬한 여름 햇살과 주렁주렁 열린 초록빛 망고에 대한 그리움은 이 믿음에 덤이다

최우석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재학